**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말씀받기:** 가족 친지들을 대신해서 받으실 분들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세요.

**ㆍ섬김이 임명 및 교회수첩 배부:** 다음 주일

**ㆍ주소록 확인:** 주소록 확인해서 수정 및 첨삭해 주세요.

**ㆍ각 부서와 기관들은 2020년도 조직 및 사업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일 예배 후

**ㆍ오병이어 저금통:** 애찬 때마다 잊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하세요.

**ㆍ지난주 방문:** 맹현수-이은영/지훈, 지연

**ㆍ생일:** 박종희, 송광준, 최민찬

**◆말씀일기 일정**

일/창3:1-24 월/창4:1-26 화/창5:1-32 수/창6:1-22

목/창7:1-24 금/창8:1-22 토/창9:1-17 일/창9:18-29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2독, 나지홍 집사 개인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월 5일** | **1월 12일** | **1월 19일** | **1월 26일** |
| **예배기도** | 송인선 | 김영희 | 박종희 | 박상훈 |
| **말씀일기** | 한상철 | 조경숙 | 강일구 | 김종권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 **헌금위원** | 나지홍, 박성희 |
| **애찬봉사** | 밥상 넷 | 밥상 하나 | 나라주일 | 밥상 다섯 |

**37-1호 2020년 1월 5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신 년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1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93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550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 송인선 권사한상철 장로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사43:1-3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너는 내 것이라’**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12장 ………………….…….…………말씀받기/Jahreswort …………………………………………………………………………합심기도/Gebet ……........……………………………………………….......................봉헌/Kollekte ……………………… 봉헌송 : 조혜정 집사 ………………… | 다 함 께다 함 께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창1장 '보이시는 하나님'** ▶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성경은 역시 성경, 책 중의 책, 바로 그 책이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점잖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태초라는 시간으로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첫 마디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1)셨다고 선언한다. 성령의 감동은 이런 것이리라. 사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유형이나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를 ‘말씀중심’과 ‘성령중심’의 두 흐름으로 크게 나누곤 한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오늘 특히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말씀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이 존재할 수도 없고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이실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본다. “이르시되” “부르시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보인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31)는 구절을 읽을 때 내게는 하나님의 빛나는 눈, 춤추시는 손과 발, 허리가 보인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26)는 말씀을 대하면서는, 의지를 굳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동산을 산책하시는 모습까지도 보게 된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서 주님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만을 빕니다.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 협력하는 곳 ◈**

▶스펙트럼 교회 ▶라인란드 지역 외국인교회들(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디아코니 협력 후원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장학 지원 ▶북한 선교

▶굶주린 이웃 돕기(케냐 총게노 고아원, 스타여고,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